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7월 9일(주일) 제1155호



“그 노래는 천사들의 합창이었다”

온사랑합창단이 제5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울동하며 합창하고 있다.

온사랑합창단, 제5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대상 제25회 전국장애인 합창제 본선 출전 자격도 얻어

온사랑합창단이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온사랑합창단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온사랑합창단이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제25회 전국장애인 합창제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번 합창대회에서 온사랑합창단은 ‘이 세

상은’과 ‘꼬부랑 할머니’를 불렀다. 재치 있는 울동까지 선보여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객들은 “온사랑합창단이 부른 노래는 천사들의 합창이었다”고 극찬했다.

온사랑합창단은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해왔다. 매주 2번 씩 모여 2시간 연습하고 기도했다. 대회 2~3주 전부터는 수시로 모여 연습했다.

온사랑합창단 최경열 지휘자는 “하나님께서

온사랑합창단원과 선생님,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면서 “앞으로도 온사랑합창단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보라 단원의 어머니 이정림 성도는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해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감동이 두 배로 밀려왔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합창대회에는 온사랑합창단, 수봉재활원합창단(수봉재활원), 어울누리합창단(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

지관) 등 12개 팀이 출전했다. 이번 합창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합창단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발달 장애인 권리신장과 예술문화를 통해 다양성을 개발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한편 온사랑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만 15세부터 만 40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자유곡 1곡을 선정해서 오디션에 참가하면 된다. 온사랑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와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층 누리홀에서 연습하고 있다.

문의: 문소현 총무 010-8784-6695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다음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주차장은 사전 허가 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

다음 주일(16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주민들을 배려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환경문제까지 생각하는 일석 삼조 캠페인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환으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고 있는 운동이다. 자녀들과 함께 이웃사랑과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경공부이기도 하다.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차량,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성도들은 강남대로, 일동제약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교회 주변이나 상가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에 불법주차를 하는 일부 차량들로 인해 캠페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2015년부터 이웃과 환경을 배려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서빙고 7월 17일 전기안전검사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정전

전기실에서 7월 17일(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 시간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는 전원공급이 되지 않는다.

문의: 02-3215-3120, 3130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본지에서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 청년부, 각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간증, 아웃리치 현장을 담은 사진과 후기를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본지에 게재해준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 글자크기는 10포인트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6

특집_ 국내 아웃리치 여기로 가자!

“주민 전도 위한 마을 잔치를 열어주세요”

신바람 나는 교회로 변신한 경남 함양 옥산교회로!



옥산교회 주일예배 풍경.



단출한 식탁이었지만 천국잔치가 따로 없었다.

아웃리치 시즌이다. 본지에서는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이웃들과 교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어촌선교팀의 자문을 받아 가급적이면 도움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이웃들과 교회를 우선 선정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산교회다. 성도 단 한 명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7명으로 늘었다. 유교와 불교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온누리교회에 마을 주민 전도를 부탁해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경상남도 함양군은 전라도와 경상도, 덕유산과 지리산이 마주하는 곳이다. 두 명산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함양군은 병풍처럼 둘러싸인 높은 산과 그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맑고 많아 경치가 빼어나다. 옥산교회로 향하는 길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지천 가득 내려앉은 녹음이 피로를 잊게 만들었다. 옥산교회가 있는 옥산마을은 고즈넉한 시골마을이다. 마을 뒤편에는 산자락이 늘어져있고, 마을 앞에는 생기 가득한 논밭과 개울이 흐르고 있다. 고즈넉한 시골마을에 높게 솟은 하얀 십자가가 천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경상남도 함양군은 수려한 자연 말고 유명한 것이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빼대 있는 양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교 유적지다. 예로부터 경상도에서 빼대 있는 양반 고장을 말할 때 안동과 함께 손꼽히는 고장이 바로 함양이다. 함양은 안동에 견줄 만큼 학문과 문벌이 번성했던 이른바 양반의 고장이다. 또한 산이 많은 고장이라 그런지 불교문화도 번창했다. 함양군 골짜기마다 절터와 불교유적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중에서 함양 석조여래좌상, 승안사터 삼층석탑, 석조여래좌상, 이은리 석불 등이 대표적인 불교유적들이다. 이처럼 불교문화가 번성했다는 것은 기독교 교세가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함양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교회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 교회가 있는 마을을 찾아 보기도 어려웠다. 옥산마을 주변 3개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척박한 땅이 함양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지역에서 옥산교회 성도가 단 한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딱 한 명이던 성도가 일곱 명으로

기자가 옥산교회에 도착했을 때 주일예배가 한창이었다. 배홍배 목사, 허기선 사모, 정옥례, 강경수 집사 부부, 조을순 성도까지 총 5명이 웅기종기 모여 예배드리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예배당이 식당으로 변신했다. 널따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점심식사를 먹었다. 반찬이 너무 많다며 목사님에게 덜어주고, 목사는 맛있는 것 많이 드시라며 성도들에게 그 반찬을 다시 덜어줬다. 멸치자반, 감자볶음, 부추전 등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들은 분명 천국잔치를 하고 있었다.

성도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만든 비결은 역시 전도였다. 배 목사와 성도들의 입술에서 전도라는 단어가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어느 집 부부는 교회에 다녔고, 어느 집 주민은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질겁해요. 또 어느 집 안주인은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주말에 옆집 눈에 피를 뽑으러 가야 해서 못 나오고 있어요”

강 집사의 말에 귀 기울이던 배 목사가 주민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심방을 가야 할지 가다를 잡았다. 배 목사는 올해 1월 옥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아직은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강 집사가 배 목사에게 전해주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나가 금싸라기가 아닐 수 없다. 배 목사는 성도들이 들려주는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

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심방을 간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 한 명이던 교인이 7명까지 늘었다. 단순히 성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주민들에게 흉물 혹은 흉가로 천대받던 옥산교회가 인정받고 있다. 배 목사는 아직도 옥산교회에 처음 왔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교회를 보자마자 헉! 소리가 났어요. 교회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했거든요. 예배당 천장에는 구멍이 나있고 바닥에는 못이 튀어나와 있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옥산에는 퇴적물 사 이로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관리가 되지 않았으면 목사가 보기도 헉 소리가 났을까. 그때는 90세가 훌쩍 넘은 어르신 한 분만 주일예배를 드렸다. 성도가 단 한 명이였다. 주민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배 목사 부부는 부임하자마자 교회 청소부터 했다.

“교회 옥상 치우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사택은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전주에서 함양까지 3개월 동안 출퇴근을 했어요. 쓰레기 치우고, 담 허물고, 교회 마당을 꾸미는 등 할 일이 어찌나 많았는지 몸살이 날 지경이었어요”

청소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니 놀라운 일이었다. 교인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다. 정옥례, 강경수 집사 부부도 몰라보게 말끔해진 교회를 보고 다시 교회를 찾은 성도 중 하나다.

“저는 30년 전 옥산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애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항상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새로 목사님이 왔다고 해서 와보니까 정말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서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민광호 성도, 최기순 성도, 우결섭 성도도 마찬가지다. 배 목사의 열심에 감동을 받고 다시 교회를 찾았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닫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올해 93세가 넘은 초신자 조을순 성도도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다.

목사는 목회할 맛이 나고, 성도는 신이 나고

요즘 배 목사는 그야말로 신바람이 났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목사가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보다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목사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고, 난생 처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 목회할 맛이 나고,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 신이 났다. 교회를 함께 가꾸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던 교회 앞마당에는 잔디와 조경수가 멋들어져 심어져 있고, 쳐다보기도 싫던 사택에는 성도들과 허 사모가 심은 옥수수, 호박, 토마토도 먹음직스럽게 자라고 있다.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옥산마을과 주변 3개 마을에는 주민 200명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전도대상이다. 유림면 파출소 소장인 민광호 성도가 앞장서서 이웃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목사부부 자원봉사팀이 옥산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발마사지, 청각관리 봉사를 했다. 그 덕분에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한 마을 주민들이 달린 교회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한다.

“수년 동안 죽어가던 교회가 신바람이 넘치니까 주민들이 놀랄 만도 하지요. 그래도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전도와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온누리교회가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경상남도 함양군 옥산마을 주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옥산마을 주변 마을 주민들도 초청해 마을 잔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바람 나는 잔치를 열어서 마을 전체를 복음화 시키는 배 목사의 꿈을 실현시켰으면 좋겠다.

문의: 서빙고 농어촌선교회 010-4286-0078
옥산교회 배홍배 목사: 010-4146-2265
주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림옥산길 1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는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세와 서약이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맹세나 서약보다 강화된 약속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약입니다.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상호간에 헌신하는 약속의 형태입니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영어로 커번트(covenant), 우리말로 ‘약속’, ‘언약’, ‘계약’으로 번역합니다. 언약은 당시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의 증거가 되는 동물을 둘로 찢개고, 피가 흐르는 동물을 좌우로 나누고, 계약 당사자가 동물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찢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식을 체결했습니다.

“아브람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창 15:10).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창 15:17).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체결 의식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화로와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베리트’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의식이 헬라 문화의 어떤 단어가 대응되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단어가 ‘디아테케’입니다. 구원적 약속, 유산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 ‘Testament’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부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키

지 않기 때문에 맹세, 서약, 계약, 언약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시지만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조차 없기 때문에 형성시켜줘야 합니다. 그 도구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치 빛진 자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 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1절).

하나님이 호렙산(시나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외에 모압에서 언약의 말씀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보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동떨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모압 평야에서 보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주어졌지만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2~3절).

왜 이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이 있어야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들은 기적만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4절).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광야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여는 장소입니다. 평야에서는 볼 수 없었고, 풍족한 환경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웃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밭의 신밭도 낫지 않았고.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5~6절).

광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체험했을까.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네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12~13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목적은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백성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형태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에 순종하고, 구원과 복을 누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

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신 30:6).

새 언약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순종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멸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와 말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렘 31:31~33).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언약이 실패함으로 저주가 역사 속에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렘 24:7).

여러분, 모든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왜 피가 필요했을까.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마음은 십자가에서 제거되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심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축제 때 아이들처럼
약간 아한 옷 입으면
안될까요”

전교생과 '카톡 소통'
여주 대신중고
임희창 교장



경기도 여주 대신중·고등학교 임희창 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일보 제공

교장선생님은 ‘카톡 친구’ ... 왕따·폭력은 ‘차단’

(SNS '카카오톡')



임희창 교장이 학생들 이름이 적힌 카카오톡을 보여주고 있다.

여주지역 유일한

미션스쿨

1953년 설립 이후 한때
‘강패학교’

학생 수 줄며 폐교 위기
겪었으나 왕따·학교
폭력 없는 모범학교로

전교생 연락처 알고 있는
임 교장

수시로 학생들과 카톡 하며
공부·이성 문제 등 듣고
함께 해결

작년 4년제 대학 진학률
61% 등

학생들 인성·실력에서
‘열매’

금요일 기독교 동아리

인도로 예배

교회 절기 땀 교계 인사

초청 강연

“전교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건축비 채워
지길 기도 중”

최근 모 초등학교 수련회에서 A군이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및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의도적 폭행은 없었다’며 사건을 무마시켰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진상조사에 나섰다. 여러모로 씁쓸한 세태다.

지난 21일 경기도 여주 대신면에 있는 대신중·고등학교를 찾았다. 왕따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로 유명하다. 임희창 교장(61세, 온누리교회 장로)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소풍 갈 때 사복 입게 해주세요”, “축제할 때 아이들이 입는 조금 아한 옷 입으면 안 되나요”, “축구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요즘 공부 잘 안돼요”...

카톡엔 요즘 학생들의 이런저런 고민이 들어 있었다. 맛있는 빵을 사달라는 애교 섞인 요청도 있었다. 어떤 남학생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으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는데 고민이라고 했다.

임 교장은 정성껏 답을 해준다. 교사들과 의견을 나눠 가능한 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준다. 상담을 통해 격려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 교장은 전교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카톡을 통해 학생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다. 아이들의 재능과 성격, 꿈, 성격 등을 파악해 교감 및 교사와 함께 진로지도를 한다. 학생들은 임 교장을 만나면 달리기나 팔씨름을 하자며 소매를 잡아끈다. 임 교장이 게임에서 지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을 사달라고 요구한다. 물론 자신이 이겨도 먹을 것을 사준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면 이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고민을 수시로 상담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상담하는 가운데 풀려지곤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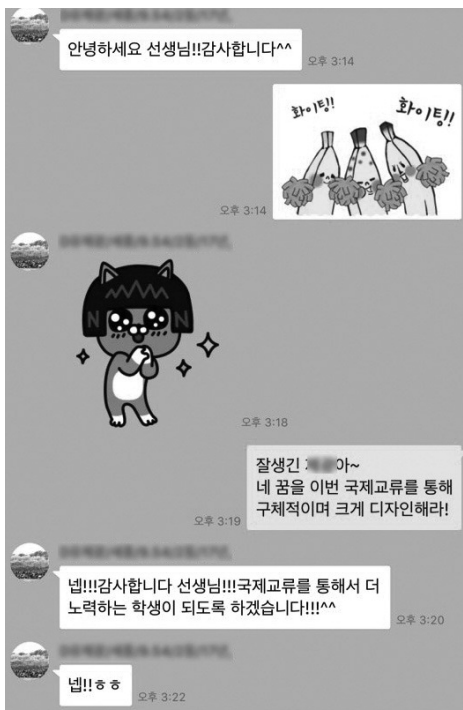
수년 전부터 학교에 전혀 연고가 없는 한 중년 남성이 장학금을 내놓고 있다. 그저 학생들을 잘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우연히 그 중년 남성이 버스를 놓친 우리 학교 남자 고등학생을 태웠답니다.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남학생의 학교 자량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요.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다. 왕따나 폭력이 없다. 매일 선생님과 즐겁게 생활한다 등 학생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대요. 주변에서 욕하는 청소년, 입시에 찌들어 무표정한 학생들만

봐오던 그분은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장학금을 쾌척한 것이군요. 매년 장학금을 면사무소에 맡기신답니다.”

학교는 투명한 재정을 지향한다. 교사를 채용할 때 학교발전기금이나 뒷돈을 받지 않는다. 학교공사 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 좋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된 셈이라고 임 교장은 귀띔했다.

1953년 설립된 학교는 이농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 한때 폐교위기에 처했다. 공부 안하고 말쑥피우는 학생도 많았다. 일명 ‘강패학교’였다. 하지만 2003년 경기도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다. 오랜 역사와 전통, 꾸준히 인성교육과



진학지도를 잘한 덕분이었다. 임 교장과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동문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한몫했다. 지원받은 32억 원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했다. 기숙사와 체육관 건립 등으로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중학교도 혁신학교에 선정됐다.

학교는 여주 지역의 유일한 미션스쿨이다. 매주 금요일 기독교 동아리 ‘그루터기’ 인도로 예배를 드린다. 또 교회 절기마다 교계 인사를 초청해 귀한 메시지를 듣고 있다. 찬양팀 ‘가즈 이미지 미니스트리(God's Image Ministry)’를 초청해 매년 공연도 개최한다. 가즈 이미지 미니스트리는 미국 한

인교포 2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뮤직 프로덕션이다. 7월 7일 학교 체육관에서 4번째 공연을 가졌다. 호주와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등 5개국 8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도 열심이다.

학교는 ‘5무(無) 운동’을 펼치고 있다. 촌지와 체벌, 따돌림, 폭력, 흡연없는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대신스포츠클럽, 신입생 교복 입혀주기, 뒤뜰야영, 등굣길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펼친다. 그 결과 폭력과 왕따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학생회장 조일현(고3) 군은 “작은 학교지만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교”라고 자랑했다.

교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는 학생,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도는 학생, 선생님과 어울려 게임하는 학생의 모습이였다. 윤규리(고3) 양은 “교무실은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늘 열려있다.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보다 더 많은 학생이 찾아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며 상담한다”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소개했다.

대신고는 60여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학술과 취미, 봉사, 진로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 자신의 꿈에 맞는 진로 및 특기를 찾고 있다. 특히 교내 드론탐구동아리와 방송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의 학교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대신고는 높은 대학진학률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8명의 졸업생 중 명문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1%였다. 2015년 교육부로부터 창의인성 수업연구 우수연구회로 선정되는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 학교 중고등 6년 과정을 졸업하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임 교장은 신학을 공부했고 2010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요즘엔 전교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건축비용이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다. 그는 학생이 행복해지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했다.

“아이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착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임 교장이 남긴 말이다.

여주=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이 글은 지난 6월 24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보도된 기사를 전재했습니다.

특집_ 돌이키면 살아나라

1.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2. 19세기 2차대각성운동 3. 무디부흥운동과 아주사대부흥운동 4. 평양대부흥운동

세계선교와 오순절운동의 출발점

“돌이키면 살아나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의 역사다. 미국은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2차대각성운동,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아주사대부흥운동을 계기로 종교적, 국가적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다. 역사신학자 조현진 교수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사실을 풀어낸 글을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조현진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역사신학)

2차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성숙한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다. 이후 무디의 부흥운동이 이어졌다. 무디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성장했지만 시카고에서 구두판매업으로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와 명예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사회적 약자들, 특히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주일학교와 YMCA사역에 집중했으며 후에 무디성경학교를 포함한 여러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세계선교의 주역 ‘무디부흥운동’

교육을 강조하는 무디였지만 정작 본인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그의 설교는 어법에 맞지 않아 상당한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무디의 설교는 많은 영혼들을 회심하게 했다. 성경에 기초한 강력한 메시지와 항상 마지막처럼 설교하는 열정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무디가 당시 지성의 전당인 영국 캠브리지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무식한 무디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듣고자 찾아온 1,700명의 지성인들이 참석했다. 집회가 시작되자 그들은 일부러 노래를 부르고 야유하면서 예배를 방해했다. 하지만 무디의 설교가 이어지자 학생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200명 이상이 회심을 체험하고 그들 중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중국 내지선교회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여 중국 선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무디는 주로 회개, 믿음, 칭의, 중생을 핵심으로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회심의 결과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다. 영국 리버풀에서 그가 한 달 동안 인도한 집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근검한 생활을 하게 되자 인근의 한 술집 주인이 불평하기도 했다. 무디가 한 달 이상 리버풀에 머문다면 이 도시의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무디부흥운동의 특징은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깨워 세계선교에 헌신하게 했다는 점이다. 1866년 여름 혈문산집회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집회를 인도한 무디는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도전했다. 이에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단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외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라는 서명에 서약하면서 학생자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태동시켰다. 이 운동은 이후 30여 년 동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세계복음화’라는 절박한 모토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무디가 주도했던 무디성경학교와 학생자원운동을 통해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로 흩어졌다. 무디부흥운동이 초석이 된 청년 선교운동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땅 끝이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을 든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시무어의 ‘아주사부흥운동’

무디부흥운동 이후 20세기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성격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다. 방언과 신유 등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강

는 가운데 1900년 12월 31일, 철야예배 도중 아그네스 오즈만 학생이 중국어로 추정되는 글씨로 무엇인가를 쓰면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날에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여러 방언이 터지면서 보헤미안 방언 등을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후 팔함에게 은사와 방언을 사모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들면서 오순절운동이 전개되었다.

1905년 팔함은 밴앨성경대학을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전해 체계화한다. 여기서 훗날 아주사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윌리엄 시무어를 학생으로 만나게 된다. 시무어는 흑인으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설교자였다. 당시 텍사스에서는 흑인이 백인과 격리되어야 했기에 시무어는 오순절 신학에 대한 팔함의 강의를 교실 밖에서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교실 안 누구보다 훌륭한 오순절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1906년 초 시무어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산타페성결교회의 초청을 받아

아주사 거리 집회를 통해 방언과 병 고침 등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놀랍게 일어났다. 집회에서 치유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지팡이, 목발, 약병, 안경 등을 집어던져버렸다. 기도 중에 방언이 터져 나왔고, 외국어 능력을 은사로 받아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이 소외받던 여성들의 활약은 놀라운 것이었다. 아주사집회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병을 고치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인종차별을 당한 시 여기던 시절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까지 함께 저녁집회에 참여해서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집회에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참석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각자의 지방과 나라에서 오순절운동을 확산시켰다. 결국 아주사 312번가는 ‘오순절운동의 요람’으로 1914년에는 가장 큰 오순절교단인 ‘하나님의 성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오순절운동은 19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1960년부터 은사주의운동으로 발전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오순절운동의 결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언과 신유를 포함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순복음교회를 포함하는 오순절운동이 처음에는 성령사역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단시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사역을 오히려 전통적인 교회들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추구하고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으로는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의 출현 등으로 급진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추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순절운동은 상당히 보수적이던 교회와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지도록 했다. 특히 남미에서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운동이 지성보다는 감성 중심적인 남미인들의 성향과 연결돼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21세기는 선교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이다. 무디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선교를 준비하셨고, 아주사부흥을 통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선교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복음의 센터가 서구에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로 옮겨지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조용한 아침의 나라이던 조선에 1884년 복음이 들어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많이 기대된다.



당시 아주사 거리의 사도신앙복음선교회 건물.

조하는 아주사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1906년 일어난 아주사부흥을 통해 오순절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오순절운동은 찰스 팔함 목사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치유사역에 힘썼으며 방언을 성령세례의 일차적 증거로 보았다. 팔함은 감리교 목사로 활동하던 중에 1900년 캔자스 토페카에 밴앨성경대학을 설립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학교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경건의 실천을 강조해 기도가 중시되었다. 팔함은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그 외국어를 말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는다.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성령세례가 바로 방언(외국어 구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팔함은 자신의 밴앨성경대학 학생들에게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여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역설하였다. 방언을 강조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다. 주일오전 예배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행 2:4)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방언을 성령세례의 성경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가 집회를 인도하려 갔을 때 교회 문이 잠겨있었다. 시무어의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한 설교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교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집회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냉대에도 불구하고 시무어는 자신을 따르는 에드워드 리의 집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1906년 4월 9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 예배 참석자들의 방언이 터져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집회 장소였던 집의 현관이 무너지는 일까지 생기자 시무어는 아주사 312번가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창고를 예배처소로 삼고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곳에 ‘사도신앙복음선교회’를 설립해 3년 이상 매일 세 번씩 예배를 드렸다.

강남C공동체 고금도



김안강 집사
(강남C공동체)

고금도는 전라남도 완도 아래에 있는 섬이다. 1993년 12월 고영석 목사가 섬마을 복음사역을 위해 장항갈보리교회를 개척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년층이 주축이 되어 성도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척박한 땅이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강남C공동체를 부르시고 2014년부터 고금도 아웃리치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첫 아웃리치 때는 태풍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벽화 작업을 못했다. 두 번째 아웃리치 때는 미술계 지망생이 땡벌 아래에서 벽화 콘셉트를 잡고 밑그림을 그렸다. 세 번째 아웃리치였던 작년에는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마을 벽화를 아름답게 그렸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많은 주민들이 자기 집에도 벽화를 그려 달라고 했다. 그 중에는 베트남 아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이 있었다. 베트남 아내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강남C공동체가 그린 벽화를 보고 자신의 집에도 그려주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올해 고금도 벽화 아웃리치는 작년에 자기

집에도 벽화를 그려 달라고 했던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기대가 생겼다. 이번 아웃리치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랑, 겸손 다락방이 연합했다. 각각 최승철 다락방장과 정형룡 다락방장이 리더십이 되었다. 고금도 벽화 담당으로 신동일 총감독, 강리나와 이현정 미술작가를 세웠다. 신동일 총감독은 작년에도 섬섬기에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벽화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는 그의 영감이 꼭 필요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기도로 준비했다. 아웃리치를 19일 남겨두고 열린 기도회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했다. 기도의 용사들인 이애리 권사, 이정은 권사, 김현희 권사의 기도가 힘을 더했다. 신동일 총감독이 발표한 벽화 주제는 ‘선지자 요나’였다.

드디어 고금도 아웃리치 아침이 밝았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집에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그렸다. 신동일 총감독, 강리나, 이현정, 윤지원 미술작가, 김창욱 장로가 먼저 가서 밑그림을 그렸다. 다음날 출발하는 후발대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먼저 헌신하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벽화를 그렸다. 베트남에서 온 아내를 위해 벽화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에게 베트남 모자 ‘농’을 씌워주기도 했다. 자신의 집에 그린 벽화를 본 그들 부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

“그 가정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강남C공동체가 고금도에 그린 벽화 ‘선지자 요나’. 이 벽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이 집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했다.

다. 고영석 목사님도 주님의 만지심에 감동을 받았다. 그 순간만큼은 섬마을의 고단한 삶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의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 했는지 모른다.

고금도 벽화 아웃리치 팀장은 작년에는 최승철 다락방장이, 이번에는 정형룡 다락방장이 섬겨주었다. 참여자들은 나상웅, 이용구, 김창원, 박환성, 임상빈, 박세훈, 황진기, 김안강, 박정우, 이애리, 이정은, 김현희, 김현욱, 양혜라,

윤경옥, 김경애, 황수현, 어린이 참여자로 임찬이, 임태이, 박하영, 신원준, 신원재가 함께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행복한 아웃리치를 경험했다. 돌아오는 길에 이현정 미술작가의 말이 내 마음을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에 벽화를 그려준 집의 남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네요. 귀여운 두 아이들과 그 가정이 예수님께 영광되도록 더욱 기도합니다.”

차세대 남아시아국



박은별 성도
(유년1부 교사)

같은 부서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 함께 남아시아국 아웃리치를 가자고 권유하셨다. 하지만 나는 아웃리치 준비모임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바쁜 업무와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를 가기 전까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아웃리치를 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

아웃리치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는 구토증상으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결국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건강과 MK(Missionary Kid, 선교사 자녀)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함께 아웃리치 가는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다보니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다. 그렇게 남아시아국 땅을 밟았다. 그 다음날부터 시작 될 캠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나는 MK초등부를 섬기게 되었다. 캠프 첫 날 아이들과의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방긋 방긋 웃으며 들어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

는지 모른다. 나는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 찬양할 때는 주눅주눅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열심히 따라했다. 캠프의 모든 순서마다 열정을 다해 참여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아시아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MK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교사인 부모에 의해 어려운 학업과 교육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MK들과 저녁집회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기도시간에 MK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남아시아국 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입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개인적으로도 뜻 깊었다. 삶과 사역을 다시 성찰했기 때문이다. MK들과 함께 뛰놀면서 문득 처음 초등부사역을 시작했을 때 열정적이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다. 사역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 모습을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첫 섬김 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다짐했다.

사역 마지막 날이 훌쩍 다가왔다. 아이들에

“우리 보러 또 와주실 거죠?”



주눅주눅하던 아이들이 교사들의 율동을 보며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게 정이 많이 들었는지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MK들도 많이 아쉬웠나보다.

“선생님, 우리 보러 또 와주실 거죠?”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MK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캠프를 마쳤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가장 먼저 유년1부 찬양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맡겨주신 아이들

을 한국의 작은 선교사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다. 무엇보다 MK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영역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헌신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남아시아국 MK사역 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과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

네팔 고레다라 마을 주민 11명 세례

NGO 더멋진세상, 농업지원사업 등 지원 계속

네팔 고레다라 마을 주민 11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마을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지진피해 해 조기복구 사업을 실시한 곳이다. 세례식은 지난달 17일 거행됐다. 세례식이 진행된 고레다라 은혜교회는 성도가 1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지진피해 조기 복구 사업을 실시한 이후 성도가 90명으로 늘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수카냐야 살람(86세) 성도는 평생 힌두교인으로 살다 9개월 전에 스스로 고레다라 은혜교회에 나왔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과 평화가 생겼다”면서 “은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기 바란다”고 소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농업지원사업, 여름 아웃리치 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김영선 기자

입양세미나 ‘그리스도인의 입양이란?’

제이홈 세미나, 16일 오후 5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부 제이홈(J Home)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양이란?’을 주제로 입양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 주일(16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입양을 준비하고 있거나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이홈 오창화 팀장은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면서 “자녀에게는 부모가

꼭 필요한데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입양세미나에 꼭 오시기를 바란다”고 초대했다.

제이홈(J Home)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들의 모임이다. 입양가정 네트워크 및 입양관심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오창화 팀장

010-2049-8210

간사수련회 ‘Good Followership’

소명 확인하고, 감사하고, 토론하고, 이해하는 장(場)



간사들이 즐겁게 강의를 듣고 있다.

간사수련회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됐다. ‘Good Followership’을 주제로 열린 간사수련회에는 국내 10개 캠퍼스 간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간사수련회 첫째 날 도착예배에서는 양성민 목사(양재 목회지원실 담당)가 ‘부르심과 소명(Calling)’을 주제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됨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했다.

첫 강의는 한건수 집사(수원 온누리교회)가 ‘새로움의 시작’을 주제로 했다. 한 집사는 “감사가 가장 높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정은진 소장(진로와 소명 연구소)의 인도로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간사들의 소명, 은퇴, 연애와 결혼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었다. 수련회 둘째 날 오전에는 이준호 목사(서빙고 목회행정 담당)가 ‘공감과 이해 만들기’를 주제로 개인의 성격유형을 탐색하고 서로 이해하도록 돕는 강의를 했다.

한편 당회운영위원회 장로 5명은 간사수련회 첫째 날 저녁에 행사장소를 찾아 간사들을 축복했다.

디자인지원팀 윤여희 간사는 “평소 간사로서의 사명과 비전,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 깊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른 간사님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러브소나타 동경 1차 참가자모임 가져

2차 모임 7월 14일 19시 30분 양재 기쁨홀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를 20일 앞둔 지난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참가자모임이 있었다. 일반A팀, 일반B팀, 장로사관학교, 일산, 2부 주사랑, S브릿지, 양천, 영등포구로, 부천, 관악금천, 이촌, 중종로, 남양주, CH630, Pole2, 길, 요셉, W, SNS, 하늘, 서빙고 JDS(주간, 저녁)팀 참가자 316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모임은 온사랑합창단의 특순, 박종길 목사의 설교, 봉사안내 및 중보기도, 선물패킹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길 목사는 ‘행내로 가득한 사역’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러브소나타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박두원 장로(일산공동체)는 “러브소나타 집회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 더욱 뜻 깊고 기대된다”고 했고, 이윤정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일본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2차 참가자모임은 다음 주 금요일(14일) 오후 7시 30분 양재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일반B팀, 양재, 서초B, 안양평촌, 산본안산, 강남C, 과천의왕, 송파, 강동, 주기쁨, 브릿지33+, 북누리(수원), 남누리(수원), 대전, 양지, 여호수아, 허브, 갈렙, J4U, 양재 JDS(주간, 저녁), 수원 JDS팀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지 8월 18일까지 ‘금요성령집회’

양지 온누리교회가 8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금요성령집회’를 연다.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 다니엘박 선교사, 최형근 교수, 홍성근 목사, 이재한 선교사, 도육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사전에 집회 참가 신청을 하면 숙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문의: 031-331-8171

아트비전, 종교개혁 500주년 전시회

온누리교회 미술선교회 온누리아트비전이 백석대학원기독교미술선교회, 사랑의교회 미술선교회, 지구촌 전문인 미술선교회 등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7월 21일까지 창세기 ‘태초에’를 주제로 지구촌교회 수지채플(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48번길)에서 진행된다.

의료선교팀 CMN, 케냐로 아웃리치 떠나

현지인 3,000명 치료, 기부금 전달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 본부팀이 어제(8일)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33명으로 이뤄진 CMN 본부팀은 9박10일 동안 몸바사에서 현지인 3,000명을 치료할 예정이다. 또한 CMN 정찬의 팀장이 활동하고 있

는 ‘사랑의 다리 장학회’에서 ‘키캄 발라제자양육센터(DTC)’에 600만 원을 기부한다.

정찬의 팀장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케냐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동경 기 · 도 · 제 · 목

- 7월 10일(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행사 모든 과정 가운데 덮여지도록
- 7월 11일(화) 일본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도록
- 7월 12일(수) 초청자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 7월 13일(목) 이재훈 목사님이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 메시지를 잘 전달하도록
- 7월 14일(금)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 7월 15일(토) 러브소나타 일정과 환경을 주님이 온전히 관장하도록
- 7월 16일(주일) 모든 행사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